

# 바다에 이름표를 달아줘

이재학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바다의 이름

해양과 관련된 공식적인 명칭은 국제수리기구(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IHO)가 정하고 있는데, 극지 해역은 아시아와 북아메리카 대륙에 둘러싸인 바다가 북극해(The Arctic Ocean)로, 2000년부터는 남위 60도 이남의 바다를 남극해(The Southern Ocean)로 명명하여 지구의 5대양에 포함하였다. 두 대양은 각기 독자적 이름을 가진 크고 작은 해역들로 구분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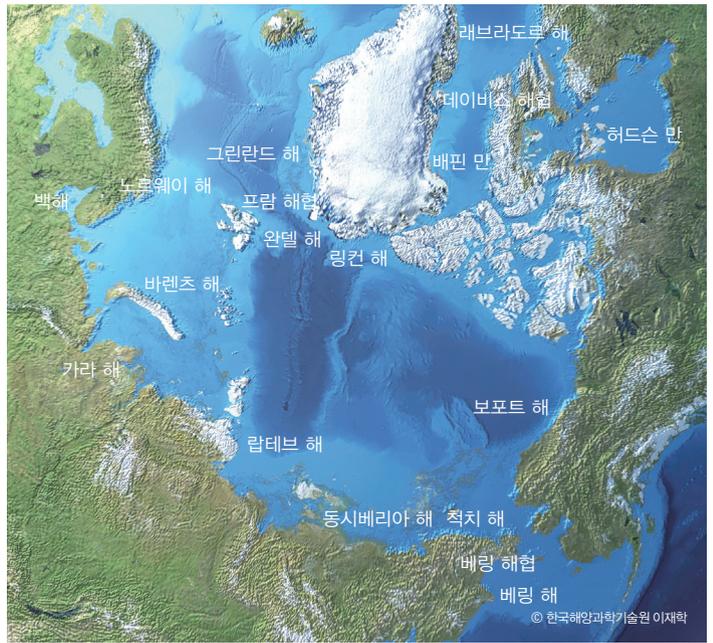
극지 해역의 바다는 탐험가, 항해자 그리고 선박의 이름 등을 사용하여 부르고 있는데, 바다의 명칭만으로도 양극해 탐험의 역사를 꾸밀 수 있으며, 항해시대와 양극탐험시대를 주름잡았던 국가들이 어디였는지를 알 수 있다.

## 북극해

북극해는 태평양과 연결된 베링 해협에서부터 동쪽으로 척치 해(Chukchi Sea), 보포트 해(Beaufort Sea), 북서항로를 지나 그린란드 북서쪽의 링컨 해(Lincoln Sea)와 북동쪽의 완델 해(Wandel Sea)로 연결된다. 이어서 러시아와 접한 바렌츠 해(Barents Sea), 백해(白海, White Sea), 카라 해(Kara Sea), 랍테브 해(Laptev Sea)와 동시베리아해(East Siberian Sea)로 구분되어 있다. 완델 해 남쪽은 프람 해협(Fram Strait)을 경계로 그린란드 해와 노르웨이 해로 구분되어 북대서양과 연결된다. 그린란드와 캐나다 사이의 데이비스 해협(Davis Strait)을 경계로 북쪽은 배핀 만(Baffin Bay)으로, 남쪽은 래브라도르 해(Labrador Sea)로 명명되었으며 래브라도르 해는 허드슨 만(Hudson Bay)과 북대서양과 연결된다.

이들 바다의 이름은 대체로 항해가나 탐험가를 기리기 위하여 이름이 붙여졌으며 탐험선과 지역

명칭을 사용한 경우도 많다. 우선 사람의 이름에서 유래한 경우를 열거해 보기로 하자. 베링 해와 베링 해협은 러시아가 캄차카(Kamchatka) 반도를 탐사할 때 선장으로 활동한 덴마크 출신 항해자 비투스 베링(Vitus Bering, 1681~1741)을 기리기 위하여 명명되었다. 보포트(Beaufort) 해의 보포트는 풍력의 세기를 표현하는 보포트 스케일(Beaufort scale)로 더 알려진 영국해군에서 근무한 아일랜드 수로학자이자 장교인 프란시스 보포트 경(Sir Francis Beaufort, 1774~1857)을 기린 것이다. 링컨 해의 링컨은 1881~1884년에 걸친 아돌푸스 그릴리(Adolphus W. Greely) 탐험대를 지원한 미국 육군



북극해의 바다와 해협

장관 로버트 토드 링컨(Robert Todd Lincoln)의 이름을 딴 것이다. 바렌츠 해와 랍테브 해는 각각 북동항로를 찾는데 헌신하였던 네덜란드의 항해가 윌렘 바렌츠(Willem Barents, 1550~1597)와 러시아 탐험가 드미트리 랍테브(Dmitri Laptev, 1701~1771), 카리톤 랍테브(Khariton Laptev, 1700~1763)에서 유래하였다. 허드슨 만은 1610년 이곳을 처음 탐험한 영국의 식민지 개척자인 헨리 허드슨(Henry Hudson, 1560?~1611)에서 유래한 것이며, 라브라도르 해는 포르투갈 탐험가 자용 페르난데스 라브라도르(Jaon Fernandez Labrador, 1453~1501)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배핀 만은 1616년 이 곳을 상세하게 기술하였던 영국의 항해탐험가 윌리엄 배핀(William Baffin, 1584~1622)의 이름을 기념한 것이며, 데이비스 해협은 이 해역에서 북서항로를 찾던 영국의 탐험가 존 데이비스(John Davis, 1550~1605)의 이름에서 가져왔다. 그는 포클랜드 군도를 발견했다.

인명과는 관계없는 바다 명칭도 있다. 프람 해협은 1893~1912 동안 노르웨이의 탐험가였던 표도르프 난센, 오토 스베드럽(Otto Sverdup), 오스카 위스팅(Oscar Wisting)과 로알 아문센이 이용하였던 선박 프람(Fram) 호를 기리기 위하여 붙여졌다. 백해는 흑해, 홍해와 황해와 함께 색깔의 이름을 갖는 4개 해양 중의 하나다.

그린란드 해, 노르웨이 해, 완델 해(Wandel Sea), 카라 해(Kara Sea)는 탐험가나 탐험선과는 관계없이 지리나 국가 명을 사용한 것이며 척치 해는 인근 연안과 처코트카(Chukotka) 반도에서 생활하던 원주민에서 유래하였다. 동시베리아 해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바다로 1935년에 소비에트 정부가 명명했다. ‘시베리아’는 몽고 내의 시베리아 타타르족 언어로 ‘잠자는 땅’이라는 뜻이다.